

# 이슬람교 연구

이 순 복  
(2년 · 선교신학회)

7세기초 아라비아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선교적 종교(missionary Religion)였다.<sup>1)</sup> 선교를 위한 저들의 줄기찬 노력으로 이슬람교는 오늘날도 세계 전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으며 온 세계를 향한 선교에 매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이다. 우리 나라에도 이슬람교가 들어온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지금은 비록 약세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음을 믿을 때 마28:19의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는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슬람교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며 이슬람교에 대한 국내서적은 거의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 작은 글은 이슬람교를 비판하기 위함도 아니요 저들과 우리를 비교하여 우리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함도 아니라 저들을 좀더 알고 저를 깊숙히 파고들어 효과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인 것이다.

## I 이슬람교의 명칭

이 종교의 명칭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마호멧교」라 하고 동양에서는 「회회교(回教)」라 하기도 한다. 후자의 것은 중국 서역지방에 사는 터키계의 「회골」이라는 민족의 이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1) G. E. 예리슨(임홍빈역), 이스람교란?, 서울: 성광문화사, 1978, p. 41.

중국에서는 「청진교(清真教)」 또는 「이사란교(伊斯蘭教)」라고 부른다. 이슬람교란 “신에게 자기를 복종시킨다”라는 뜻을 가진 아라비아어 ‘아슬라마’에서 온 말인 ‘이슬람’ 즉 “복종하다”란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sup>2)</sup> 이슬람교 신자를 ‘무슬림’이라 부르는데 이는 ‘알라신을 신봉하는 무리’란 뜻을 가지고 있다.

## II 이슬람교의 시작과 전래

### 1. 배경

이슬람교가 생기기 전의 아라비아 지역은 흩어진 유목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무지의 시대’로 알려져 있었다.<sup>3)</sup> 당시 아라비아는 유목민으로서 옮겨다니면서 살던 베드원(Bedouin) 이런 계층과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어 도시에 거주하는 상인들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중심도시가 메카(Mecca)였는데 상업도시로 대단히 부요한 곳이었다. 이 도시에는 카아바(Kaaba)란 입방체 건물이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이 건물은 ‘알라의 집’으로 알려져 신성시 되고 있었다. 아라비아어로 ‘알라’(Allah)란 말은 ‘하나님’(The God)<sup>4)</sup> 이런 뜻이다. 이는 그들이 알라를 최상의 하나님(Suprem God)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알라를 유대인들을 통해 배웠는지 혹은 그들의 조상을 통해 배웠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들은 알라를 유일신으로 경배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카아바에는 수많은 남성신과 여성신들이 있었다.<sup>5)</sup> 메카에 살던 시민들은 그들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대중적인 종교는 영적 만족을 주지 못했다. 당시 메카의 북쪽에 위치한 메디나(Medina)에는 3개의 유대인 집단이 있었고 그들은 교육과 생활에 있어서 아랍인들보다 훨씬 높았으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했다. 또한 당시 아라비아에 크리스챤의 집단도 있었다. 동방교회인 네스토리안 교단은 일찌기 아라비아에 선교사까지 파송하기도 했으나 대단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sup>6)</sup>

### 2. 이슬람교의 시작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도를 찾는 많은 구도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A.D. 610

2) 태극출판사편, 대백과사전(12), 서울: 태극출판사, 1973, p. 193.

3) *Reaching Muslims Today*, North Africa Mission, 1976, p. 11.

4) 이슬람교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 God이라 번역하였고 한글의 다른 말이 없으므로 평의상 하나님이라 번역할 뿐이다.

5) William M. Miller(김철봉역), 이슬람교를 향한 기독교의 책임, 부산: 양문출판사, 1982, pp. 18~19.

6) Ibid., p. 20.

년경 구도자들 틈에 끼여 한 동굴<sup>7)</sup>에서 명상하던 40세된 무하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알라신의 계시를 듣게 되었고 계속된 강한 계시에 접한 그는 측근자들에게 그 계시를 들려주면서 예언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많은 펍박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고 열심히 그가 받은 계시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점차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 3. 이슬람교의 확장

무하마드의 사후(A.D. 632년) 그의 후계자인 칼리프(Caliph)<sup>8)</sup>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633년에서 644년까지 시리아, 이라크 북부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이란, 이집트등을 정복하고 여로곳에 기지도시를 건설하였다. 그후 계속된 정복사업으로 북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과 스페인 반도를 장악하고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북서부까지 확대되었다. 동아프리카에는 740년경부터 이슬람교가 퍼지기 시작해서 1010년경 사하라 사막을 넘어 서 수단 지방의 흑인 왕국까지 이슬람 물결이 미쳤다. 또 인도에 세력을 부식한 후 이곳을 기지로하여 말레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쪽으로 포교를 행하여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로 15-16C사이에는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였다.<sup>9)</sup>

### 4. 현재의 세력

1983년도 현재의 이슬람 신도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세계 인구의 약25%인 10억 전후라고 유엔 통계조사국에서 밝힌 바 있다. 지역적으로는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에 이르는 소위 중동지역과 동부 소련, 터키, 아프가니스탄 서부, 중공, 인도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등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다.<sup>10)</sup>

### 5. 한국에의 전래

불교와 기독교 문화속에 살아온 한국민에게 생소한 이슬람교가 그 두터운 벽을 뚫고 전래된 것은 1955년이다. 6.25사변때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터키 부대의 암둘 라흐만 종군이맘<sup>11)</sup>과 주베르코취 종군이맘에게 한국포교를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요청한 김진규와 윤두영에 의하여 포교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7) 이 동굴 이름은 허라(Hira)였다.

8) 칼리프는 ‘대리인’이란 뜻으로 무하마드의 후계자를 말한다. 초대 칼리프는 아부바크였다.

9) 동아출판사편,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23), 서울:동아출판사, 1983, p.180.

10) Ibid.

11) 이슬람 2대교파중의 하나인 시어파에서 칼리프대신 후계자를 이맘이라 부르는데 선생, 지도자라는 뜻이다.

이슬람교는 70년대에 접어들어 중동 봄을 타고 두드러지게 교세가 확장되어 근래에 매년 중동·각국에서 무슬림이 되어 귀국한 1700여명의 가능근로자 신도들을 핵으로 삼아 신도 배가 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의 이슬람교는 한국인의 습성 및 기호와의 차이를 비롯하여 예배의식의 용어나 교리의 토착화 등 숱한 난제를 안고 있다.<sup>12)</sup>

### V. 교조 무하마드

그에 대하여 알수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코란 밖에 없다.

#### 1. 출생과 성장

“하나님의 섭리속에” A.D. 500년경 아라비아 서부지방의 메카(Mecca)에서 사내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무하마드(Muhammad)<sup>13)</sup>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그의 이름대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게되는 이슬람교의 교조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 암둘라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고 어머니 아미나(Amina)도 그가 6살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고아가 된 이 소년은 할아버지 품안에서 자라다가 할아버지 역시 죽자 그의 삼촌 아부탈리브(Abu Talib)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의 가문은 쿠라쉬(Quarash)라는 빼내있는 집안이었으며 메카에 있는 카아바를 돌보는 존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sup>14)</sup> 그는 12살쯤 삼촌을 따라 시리아로 장사를 갈 정도로 대상(Caravan)의 길을 몸에 익혔다. 25세때 부자 과부인 카디야(Khadijah)에게 고용되어 신임을 받은 그는 40세난 카디야로부터 결혼 제의를 받아 결혼하게 되었고 인정된 부위기속에서 깊은 명상에 잠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주위의 친척들인 유대교도와 기독교인들과도 접촉하면서 유일신 사상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참신을 찾으려고 노력한 신실한 구도자였다.

#### 2. 예언자로 등장하는 무하마드.

구도에 힘써던 무하마드는 라마단(금식) 절기의 어느날 한 동굴에서 명상하던중 천사가 나타나 암송하란 명령을 하였다.<sup>15)</sup> 환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던 그에게 2년후 다시 환상과 계시들이 나타나자 그는 그 계시를 되풀이 하였고 그의 측근들이 그것을 받아 기록하였다. 그것을 모아 엮은 것이 이슬람교의 경전

12) Ibid.

13) 그 이름의 뜻은 ‘찬양받을 자’이다.

14) William M. Miller, op.cit., p.21.

15) “윗덩이로써 인간을 창조하신 주의 이름으로 그대여 암송하라”란 코란96장에 나오는 말을 2번이나 암송하도록 명령했다.

인 코란이며 무슬림들은 코란은 무하마드의 책이 아니라 신의 책이라 믿고 있다. 그가 활동을 보고 계시를 받은 것은 40세였고 3년후에 그는 “경고자”로서 공적으로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주제는 신의 섭리와 심판, 메카인들의 원악 함을 비판함, 그리고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었다.<sup>16)</sup> 처음 그가 알라신이 보낸 예언자라 자칭하며 포교에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조롱했으며 소수의 축복자들만 그를 믿고 따랐다. 메카에서 신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펑박이 시작되었고 이슬람 종교로 뚜렷한 성격을 갖게 된 것은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sup>17)</sup>

### 3. 헤지라 (Hegira)

메카에서의 견딜 수 없는 박해 때문에 무하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A.D. 622년 여름 메디나로 이주하였다. 이것을 ‘헤지라’ (Hegira) 라하여 무슬림들은 그들의 역사출발의 시기를 이때로 잡는다. 메디나에 입성하여 처음 발을 디딘 곳을 기념하여 숙소를 세우고 처음으로 모스크 즉 이슬람교 사원을 설립했다. 그가 처음으로 설교한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결과 이슬람교의 공적 집회일이 금요일이 되었다. Gibb 교수에 의하면 메디나에서 이슬람교가 발전하게 된 새로운 특징은 종교적 공동체의 생활에서 ‘이론’이 ‘실천’ 되는 기회였다고 하였다.<sup>18)</sup>

### 4. 포교를 위한 무력 사용.

메디나에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유화정책을 써서 포교했으나 무하마드가 애초에 꿈꾸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는 신의 계시가 임했다.<sup>19)</sup> 고 주장하면서 신의 뜻이란 미명 아래 칼을 사용하여 대상(Caravan)을 습격하였고 유대인들을 공격하여 메카를 점령하여 그가 도망갔던 그 도시의 통치자로 군림하였다. 그후 그는 무력과 강제를 사용하여 많은 지역을 점령하여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였고 동시에 이슬람교를 밀도록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수원있고 능력있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 5. 무하마드의 부인들

카디야의 죽음 후 그는 여러 아내를 맞아 들였고 나중에는 그의 양자인 자이드

16) IAN H. Douglas, *Introduction to Islam*, India; Henry Martyn Institute, 1981, pp. 8~9.

17) 태극출판사편, op. cit., p. 193.

18) L. Bevan Jones, *The people of the Mosque*, New Delhi;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80, p. 18.

19) 그 계시는 “예언자여, 저 불신의 무리들을 대항하여 싸워서 그들을 준엄하게 다스리라”라는 코란 9장 74절의 말이다.

(Zaid)의 아내 자이나브(Zainab)와의 결혼을 원하게 되었다. 아랍 풍속에 양자의 아내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알라께서 허락하셨다는 계시를 내세워 자이나브를 아내로 삼았다. 그는 7명의 아내와 2명의 청을 거느렸다.<sup>20)</sup>

### 6. 무하마드의 죽음

그는 632년 마지막으로 메카로의 순례 행진을 떠났다. 그는 그의 양자 알리(Ali)를 후계자로 명했고 다른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충성하기를 다짐받았다. 632년 6월 8일 평소 사랑하는 아내 아이사의 무릎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 자리에 무덤이 만들어지고 훗날 모스크가 세워졌으며 이슬람교의 순례지가 되었다. 그는 죽기 전 최후의 메카 순례에서 “오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종교를 완성시켰노라”는 연설을 남겼다.<sup>21)</sup>

## V. 이슬람교의 경전

이슬람의 경전을 ‘키타브’ 라 부르며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것이라 한다. 모세에게 주어진 토오라(Torah), 다윗에게 주어진 자부르(Zabur), 예수에게 주어진 인지르(Inzir), 그리고 무하마드에게 주어진 코란(Quran) 등이 있다. 이들은 성문화된 계시로써 유태교, 기독교는 「성전의 백성」이라 하여 이교도와 구별한다.<sup>22)</sup>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을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받고 있다. 코란은 무하마드의 계시와 설교를 집대성한 것으로 코란이란 아라비아어로 “읽혀야 할 것”이란 뜻에서 온 말이다. 초대 칼리프인 아부 바크루(ABU Bakru)가 시작하였고 3대 오스만(Osman) 칼리프가 646년에 완성하였다.

### 1. 코란의 구성

아라비아어의 메카 방언으로 쓰였으나 후에 고전 아라비아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문제는 사주아(Szua)라는 일종의 운(韻)을 단 산문체로 독송에 있어서 리듬감이 매력을 느끼게 한다. 현행 코란은 6342아야와 114수라로 되어 있으며 각 수라에는 특징을 나타내는 표제가 붙어있다.

### 2. 코란의 번역

유일신 알라 자신의 말로 되어있으므로 무슬림은 이를 직접 이해해야 했고 번역이 금지되었었다. 12C경 기독교계의 이슬람에 대한 관심으로 최초로 라틴어 번역이 시도되었고 이어 여러나라 번역판이 나왔으며 우리나라에는 1980년 김용

20) William M. Miller, op. cit., p. 37.

21) Ibid., pp. 42~43.

22) 태극출판사편, op. cit., p. 203.

선의 「한국주해 코란역편」이 간행되었다.<sup>23)</sup>

### 3. 코란의 사상적 근원과 재료

코란속의 종교적 사상의 근원과 재료를 살피기 위해 3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이슬람 이전의 재료로서 코란에 들어온 요소인데 여기에는 다신론적인 아랍의 사상과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재료들이 주로 들어 있다.

또한 유대 재료로부터 많은 영향을 입기도 했는데 구약성경의 설명과 비슷한 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발견된다. 코란은 무하마드가 구약성서에서만 자료를 취한 것이 아니라 탈무드와 유대 교사들의 가르침에서도 많은 재료를 취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재료에 많은 영향 입었다.

더 최근의 연구는 결론적으로 증명하기를 주요한 외적 영향들은 (구약 재료들을 포함해서) 시리아 기독교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sup>24)</sup> 다른 영향들은 목 시문학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이단적인 영지주의적 교훈의 영향이 삼위일체와 십자가 교리에 있어서 코란에 나타난 참고자료 가운데서 발견되어진다.<sup>25)</sup>

## VII. 이슬람교의 신앙과 행동의 규범

이슬람에도 많은 교파와 사상의 분파들이 있지만 그들을 무슬림으로 만드는 것은 한가지 사상때문인데 “하나님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하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There is no god but God, Muhammad is the Apostle of God)는 것이다. 이슬람교의 모든 신학은 이 두 사상위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하겠다.

### 1. 신앙

#### A. 알라에 대한 신앙

무하마드 당대에 아라비아에는 수많은 남신과 여신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중에 ‘알라’(Allah)라 불리는 최고의 신이 있음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무하마드는 알라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외의 모든것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우상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sup>26)</sup>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것은 인간이 벌할 수 있는 죄중에서 최고의 무거운 죄라 생각했다.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 지식, 능력, 의지, 들으심, 보심, 말하심과 같은 것들이다.<sup>27)</sup>

23) 동아출판사편, op. cit., p. 348.

24) H. A. R. Gibb, *Islam*, India : Henry martyn institute of Islam Studies, 1979, p. 25.

25) L. Bevan Jones, op. cit., pp. 58~60.

26) William M. Miller, op. cit., p. 49.

27) L. Bevan Jones, op. cit., pp. 85~86.

또 그들은 알라를 지상(至上)의·힘, 심판자, 보복자와 같은 위협적 존재임과 동시에 자기를 믿는자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믿는다.<sup>27)</sup> 죄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알라가 금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본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두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

①큰죄(Kabira) - 살인, 음행, 술취함, 고리대금, 계으름등이며 회개해야 용서된다.

②작은죄(Saghira) - 거짓말, 속임, 화냄, 육정등으로 큰 죄를 짓지 않거나 선행을 행할때 쉽게 용서된다.

죄중의 죄는 이단으로써 이슬람에서는 용서될 수 없는 죄로 간주한다. 또 신과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이 있다.<sup>29)</sup>

①하람(Haram)-하나님이 엄중히 금한 행위. 여기면 현세, 내세에 심판이 있다.

②하랄(Haral) - 허용될수 있는 행위.

③마크로우(Makrouh) - 하람만큼 중하지는 않으나 금지된 행위. 하나님에 관한 주제가 코란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관심은 많은 무슬림의 대화를 지배하고 있다. 만일 어떤 무슬림이 자기 입술로 되뇌이는 만큼 자기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실로 경건한 무슬림인 것이다.

### B. 천사들에 대한 신앙

이슬람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없고 깨끗한 천사군(天使群)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이성관계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도 결국 죽게 되며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이다. 이들중 일부는 하늘에 있고 일부는 땅에 있다. 천사들에게는 다양한 서열이 있다. 4개 또는 8개 서열로 하나님의 보좌위에 도열해 있다. 천사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친양하며 그분의 뜻을 시행한다. 그들은 신자들을 지켜주며 그들을 위해 종보기도를 드린다.<sup>30)</sup> 무슬림 전통에는 다음과 같은 4명의 천사장이 있다.

①가브리엘(Jibrail) - 수석사자로 영감(inspiration)의 매체

②미가엘(Mikail) - 모든 피조물의 영양공급 받는 것을 돌보는 천사

③이즈라일(Izrail) - 인간이 죽을 때 영혼을 받아들이는 천사

④이즈라엘(Israfil) - 최후의 날 죽은자를 깨우는 나팔을 부는 천사.<sup>31)</sup>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했

28) 동아출판사편, op. cit., p. 202.

29)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 이슬람에서의 허용과 금기, 서울 : 한국문예공사, 1980, p. 5.

30) William M. Miller, op. cit., p. 51.

31) L. Bevan Jones, op. cit., p. 89.

다는 것을 코란에는 여러 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블리스(Iblis)라는 천사는 그 명령에 불복종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낙원 밖으로 추방했다. 그는 인간의 원수가 되었고 모든 귀신과 악령의 두령이 되었다.<sup>32)</sup>

### C. 예언자들에 대한 신앙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를 세상에 보내어 인간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 코란에는 28명의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성경의 인물이다. 예언자는 생활, 종교 양면을 지도하다가 다음 예언자가 나타나면 자기의 법은 폐하게 된다. 모든 예언자는 다음에 나타날 예언자를 예언하였는데 최후의 가장 위대한 그 예언자(The prophet)가 바로 무하마드이니 부활 때까지 다른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코란은 예수를 구세주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하지만 무하마드 만큼은 못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무하마드는 알라의 이름과 함께 모든 신도들의 입에서 쉬임없이 불리워지게 하였다.<sup>33)</sup>

### D. 부활과 심판에의 신앙

천사 이스라엘에 의해 나팔이 불려지면 하늘은 나누어 떨어지고 산은 먼지가 되고 무덤이 열리며 심판이 베풀어진다. 천사들이 각인의 기록을 증거하며 그 행위들이 저울에 달린다. 오른쪽에 놓이면 축복받는 자이고 왼쪽에 놓이면 저주받는 자이다. 하나님을 위해 꿈박받은 자는 낙원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게되고, 불신하고 사악한 자는 불 속에 떨어져 영원히 거하게 된다.<sup>34)</sup> 이슬람 전쟁에서 살해당한 순교자는 즉시 낙원에 들어가고 나머지 무슬림은 부활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 죽음과 부활사이에서 그들은 깊은 잠을 자게되며 그날이 되기까지 일반신자는 자신이 지옥으로 가게 될지 낙원으로 가게될지를 알지 못 한다.<sup>35)</sup>

### E. 선악에 대한 예정을 믿음

신자들은 선과 악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일어난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쟁이 있다.

①자바리안(Jabarians) - 인간의 모든 자유로운 행위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선악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②쿼다리안(Qadarians) - 하나님의 절대명령을 부정하고, 인간은 자유로운 행위자이며 선악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32) William M. Miller, op. cit., p. 52.

33) Ibid., pp. 55~57.

34) H. A. R. Gibb, op. cit., p. 41.

35) William M. Miller, op. cit., p. 629.

③아사리안(Asharians) - 하나님은 하나의 영원한 의지를 갖고 계시며 그가 의도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이는 하나님의 의지에 동의하면서 인간의지도 강조한다.<sup>36)</sup>

## 2. 종교적 의무

하나님이 모든 남녀신도들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들을 ‘이슬람의 다섯 기둥’이라 부르는데 이를 합하여 이바다트(Ibadat : 예배란 뜻)라 묘사하는데 이말은 암드(Abd : 노예 노릇하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이다. 노예가 주인께 드리는 복종을 의미한다.

### A. 기도(Salat, Namaz)

모든 성인 무슬림은 매일 다섯번에 걸쳐<sup>37)</sup> 기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기도 전에 세정식을 하는데 간단한 세정식(wudu)과 큰 세정식(Ghusl)과 물이 없을 때 모래나 흙으로 씻는 세정식(Taymmum) 등을 통해 씻은 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Allahu akbar)와 코란에서 뽑아만든 Fatiheh를 암송하고 엎드려 무릎을 끊고 머리를 땅에 두번 당겨하는데 이것이 절(Rakah)이며 하루 5차례 기도시간을 통해 17번의 절을 해야 한다. 이런 기도는 영적 훈련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무슬림은 기계적 행위로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 B. 금식(Saun, Ruzeh)

매년 9번째 달은 라마단(Ramadan)이라는 달로서 금식하도록 정해져 있다. 금식의 목적은 과거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다.<sup>38)</sup> 이 달에는 해 돋을 때부터 해질때까지 단식해야 한다. 병사와 여행자를 제외한 모든 성인은 먹거나 마시는 것은 물론 흡연이나 성행위까지도 금지된다. 실수로 물 한방울 삼키면 그 금식은 무효가 된다. 이 금식은 부자들에게는 쉽지만 노동자에겐 어려운 달이다. 그래서 이달에는 밤마다 축제가 열리게 되어 환자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교적 열정이 뜨거워지는 기간이기도 하다.<sup>39)</sup>

### C. 구제(alms)

구제는 경건의 외적 표시로 구원의 수단으로 행해진다.<sup>40)</sup> 구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카트(zakat)는 모든 무슬림의 의무로 수입의 최소한 1/40 이상의 일정비율을 구제를 위해 바치는 것이고<sup>41)</sup> 사다카트(sadaqat)는 가난한자 손님등

36) L. Bevan Jones, op. cit., pp. 84~85.

37) 이 다섯번은 새벽, 성오, 오후, 저녁, 밤을 말한다.

38) L. Bevan Jones, op. cit., p. 100.

39) William M. Miller, op. cit., p. 65.

40) H. A. R. Gibb, op. cit., p. 43.

41) G. E. 메리슨(임홍빈역), op. cit., p. 37.

을 위해 자유롭게 바치는 구제를 말하며 하나님의 상을 위해 감사를 받지 않으려 한다.

#### D. 순례(Haji)

무하마드는 최후의 메카순례를 실시하여 순례의 선두주자가 되어 이슬람의 규례를 만들었다. 모든 무슬림은 평생에 한번은 메카를 순례하기를 기대한다. 순례자는 ①메카에 도착하여 카아바를 7회 방문하고 ②카아바내의 검은돌에 키스하고 ③정해진 코스를 달리고 ④챔phen센터의 물을 마시고 ⑤아라파트언덕을 방문하고 ⑥악마를 상징하는 세 기둥에 돌을 던지는 행동을 하고 마지막에는 무하마드 무덤을 방문함으로써 순례가 끝나게 된다. 순례는 수많은 나라와 종족의 무슬림들이 순례복을 입고 모여 연합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행사로서 강력한 신앙의 연대감을 고취시켜 준다.<sup>42)</sup>

#### E. 성전(Jihad)

무슬림은 세계를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리와 불신앙하는 무리로 이분시켜 본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무리를 향해 성전(Holy War)을 계속해야 한다고 믿는다. 오늘날은 지하드를 영적으로 해석하여 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선교를 계속하고 있다.<sup>43)</sup>

#### 맺는말

우리 곁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이슬람교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 보았다. 굳이 이슬람교리와 기독교 교리와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신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진 이라면 이 글을 읽으면서 저절로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저들은 거대한 중동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풍성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 영역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철저하게 무슬림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동안 저들은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곧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무슬림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42) William M. Miller, op. cit., pp.67~68.

43. Ibid., p.69.